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8 BEEF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Beef」 (원서 PDF 64~71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7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자유무역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이 장은 소고기(또는 칠면조나 대체육)에 토마토 · 고추 · 강낭콩 · 초콜릿을 넣은 멕시코 스튜 칠리 콘 카르네로 시작한다. 세계 최고의 축구 나라가 인구 350만의 우루과이라는 뜻밖의 답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1인당 소가 가장 많은 그 나라에서 리비히의 소고기 추출물을 대량 생산한 LEMCO와 옥소 큐브, 노동자와 군인을 먹인 통조림 콘드 비프로 이어진다. 콘드 비프의 corn이 '곡물'이라는 데서 저자는 영국의 곡물법과 1846년의 폐지, 그리고 그것을 자유무역의 출발로 보는 프리드먼의 '기원 이야기'로 넘어간다. 저자에 따르면 영국은 그 뒤에도 오래 관세를 남겼고, 자유무역을 먼저 한 것은 불평등 조약에 묶인 라틴아메리카였으며, 19세기 자유무역은 대부분 강요된 것이었다. 오늘의 WTO에서도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쪽은 강한 나라이므로, 저자는 '자유'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뒤의 힘의 불균형을 보라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5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자유'라는 말 뒤의 힘의 불균형을 보라(70쪽 ¶2~¶4) / 규칙과 적용은 다르다 – 부자 나라의 힘(69쪽 ¶3) / 소고기 리그의 정상 우루과이(65쪽 ¶1) / 자유무역의 기원 이야기는 신화다(67쪽 ¶4)
4~5	**밑줄 함축 의미**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 no pun intended / a culinary curiosity / very imaginatively – Lemco (duh!) / the lamest name / an anathema / the 'detail' / inconvenient truths / a glaring hole /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 unfree free trade / the planet of cows / No more, no less
6	지칭 추론	he · his · him이 리비히(Liebig)를 가리키는 65쪽 ¶2(출제는 65쪽 ¶3의 기베르트를 섞는다) / It(64쪽 ¶5~¶7 = Uruguay) / They(66쪽 ¶2 = 옥소와 콘드 비프) / they(66쪽 ¶4 = most Brits) / its(68쪽 ¶2 = Japan) / they(69쪽 ¶1 = stronger countries)
7~8	내용 일치·불일치	1912 · 1917 · 2013 · 1973~1985(64쪽 ¶7 + 각주 ii) / 1830년대 · 1853 · 1910년대 · 30% · 1870~1880년대 · 35~50%(68쪽 ¶2~¶3) / 1847 · 1862 · 1865 · 1873 · 1908 · 1942(65~66쪽)
9~10	**어법**	would(완곡한 추측) · 형용사 + though · 혼합 가정법 · the first + 명사 + to have p.p. · too ~ to · consider O to be · despite + 동명사 · make + O + 동사원형 · not ~ because · used to + 수동 · must have p.p. · Without + 가정 · it ~ that 강조 · deprive A of B · be made to V · prevent A from -ing · be such that · 부분 부정 · Only when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notorious↔renowned · stupendous↔modest · affordable↔unaffordable · accessible↔inaccessible · controversial↔uncontroversial · repeal↔enact · prevailing↔marginal · glaring↔subtle · nascent↔mature · blatantly↔subtly · disproportionately↔equally(69쪽 ¶2) · unequivocally↔ambiguously
12	빈칸 추론	Britain did not actually make a full transition(67쪽 ¶4) / to shape and manage(69쪽 ¶1) / the power imbalances(70쪽 ¶4)
13	문장 삽입	LEMCO의 R&D 연구소 대목(65쪽 ¶4): 1865년 런던 설립 → 프라이 벤토스 공장 → 연구소 = 당시 BASF 같은 최첨단 기업만 가진 시설 → 첫 다국적 식품 회사
14	무관한 문장	반곡물법 동맹 · 프리드먼의 해석(67쪽 ¶2~¶3)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콘드 비프라는 이름의 유래, 66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레므코 · 옥소(65쪽 ¶5) → 1873년 통조림 콘드 비프(65쪽 ¶6) → 더 싼 부위 · 통조림(66쪽 ¶1) → 노동자의 주식 · 군인과 탐험가의 식량(66쪽 ¶2)
16	요약문 완성	불평등 조약 만료 · 탈식민 · WTO 한 나라 한 표(68쪽 ¶5~69쪽 첫 줄) → 그래도 강한 나라가 체제를 주무른다(69쪽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연도 · 이름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5 · 4 · 6,100만 · 2억 1,200만 · 350만 · 121 · 15년 · 7분의 1 · 1,100 · 50 · 20% · 46% · 5% · 3% · 30% · 35~50% · 60곳 · 18% · 85% · 10% · 1.5배 · 200배. 연도도 많다 – 1930 · 1950 · 1912 · 1917 · 2013 · 1973~1985 · 2004 · 1847 · 1862 · 1865 · 1873 · 1908 · 1924 · 1942 · 1979 · 2015 · 1815 · 1838 · 1846 · 1848 · 1860 · 1810~1830년대 · 1853 · 1910년대 · 1870~1880년대 · 1950년대 · 1980년대 · 1995.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이혼 청구권 라틴아메리카 최초 ↔ 마리화나 세계 최초, 설립 런던 ↔ 공장 프라이 벤토스, 도입 1815 ↔ 폐지 1846, 첫 자유무역국 영국 ↔ 라틴아메리카, 실제 관세 10% ↔ 허용 20 · 30%). '그렇다고 전한다 · 아마 · ~라고들 본다'(reputedly · presumably · supposedly · arguably · Many historians consider · the prevailing view)와 프리드먼의 말을 저자의 말이나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Beef」 (64~70쪽)

논증형(최고의 축구 나라 = 우루과이 → 시민권 → 소고기 산업 → 리비히의 추출물 · LEMCO · 옥소 · 콘드 비프 → corn = 곡물 → 곡물법과 폐지 → 프리드먼의 자유무역 기원 이야기 → 반박 셋(규제가 영국을 키움 · 1860년에야 자유무역 · 라틴아메리카가 먼저) → 강요된 자유무역 · 강대국의 보호주의 → 오늘의 WTO와 힘의 불균형 → 결론). 핵심 축은 **스스로 고른 자유무역 vs 강요된 자유무역**, 그리고 **형식의 평등 vs 실제 힘의 불균형**.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64 ¶1~¶3 + 70 각주 i	도입 질문	최고의 축구 나라? 브라질 5회 · 이탈리아 4회(인구 브라질의 3분의 1 미만) → 정답은 우루과이
64 ¶4~¶6	우루과이 축구	수아레스 · 인구 350만 · 1930 몬테비데오 · 1950 리우 / 브라질 인구라면 121회
64 ¶7 + 70~71 각주 ii	시민권	1912 이혼 청구권(라틴아메리카 최초) · 1917 여성 참정권 · 2013 마리화나 / 1973~1985 군사 독재
65 ¶1 + 71 각주 iii	소고기 산업	1인당 소 마릿수 1위 · 2004 모든 소 추적 · 소고기 추출물 첫 대량 생산 → 옥소
65 ¶2~¶3 + 71 각주 iv	리비히와 기베르트	1847 리비히의 발명 · 너무 비쌈 · 15년 / 1862 기베르트 · 가죽 산업의 부산물 · 냉장선 없음
65 ¶4	LEMCO	1865 런던 설립 · 프라이 벤토스 공장 · R&D 연구소 · 첫 다국적 식품 회사(많은 역사가)
65 ¶5~¶6	레므코 · 옥소 · 콘드 비프	가장 시시한 이름 · 대히트 · 영양은 대부분 빠짐 · 1908 옥소 / 1873 통조림 콘드 비프
66 ¶1~¶2 + 71 각주 v	노동자의 식량	싼 부위 · 다지기 · 통조림 / 노동계급의 주식 · 군인 · 극지 탐험가 · 1942 고기 배급의 7분의 1
66 ¶3~¶4 + 71 각주 vi	corn의 뜻	옥수수(새 미국 용법) ↔ 곡물(옛 영국 용법) · 소금 알갱이 / 콘 익스체인지 · 곡물법
66 ¶5~67 ¶1	곡물법	1815 곡물 생산자 보호 · 산업혁명 초라 논란 / 비판자: 싼 곡물 → 낮은 임금 → 이윤 · 투자
67 ¶2	폐지	1838 반곡물법 동맹(코브던 · 브라이트) · 비농업 집단의 지지 · 1846 폐지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67 ¶3	프리드먼의 이야기	'마지막 승리' ·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 · 작은 정부 / 통념: 전례 없는 세계 번영
67 ¶4 + 71 각주 vii	부정확함 둘	정부 규제가 영국 제조업의 지배를 낳음 / 1848년 1,100개 넘는 품목에 관세 → 1860년 50개 미만
67 ¶5~68 ¶1 + 71 각주 viii	첫 자유무역국	라틴아메리카(1810~1830년대) · 불평등 조약 · 관세 자주권 박탈 · 5%(낮게는 3%)
68 ¶2~¶3	강요 · 보호주의	1830년대~ 터키 · 타이 · 이란 · 중국 · 1853 일본 → 1910년대 관세 30% / 유럽 대륙 · 북미 보호주의 · 미국 35~50%
68 ¶4	자유롭지 않은 자유무역	고를 수 있던 나라 가운데 자유무역은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뿐 · 다른 자유무역국은 강요
68 ¶5~69 첫 줄 + 71 각주 ix	오늘의 체제	1950년대까지 조약 만료 · 1980년대 탈식민 · 60곳 안팎 · 1995 WTO 한 나라 한 표
69 ¶1~¶3	여전한 힘의 불균형	의제 설정 · 농업 ↔ 제조업 · 현지 조달 요건 금지 / 원조 · 대출 조건 · 소프트 파워 → 실제 관세 10%
70 첫 줄~¶4 + 71 각주 x	결론	'소의 행성' · 환경 부담 / '자유'의 지배 · 자유무역의 자유 = 국경 넘어 거래하는 이의 자유뿐 · 힘의 불균형을 보라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최고의 축구 나라	브라질(5회) · 이탈리아(4회, 인구 브라질의 3분의 1 미만)	우루과이 – 인구 350만으로 2회(1930 · 1950)
우루과이의 기록	축구 · 시민권(1912 · 1917 · 2013) · 소고기 산업	1973~1985년 잔혹한 군사 독재(각주 ii)
리비히의 기대	가난한 사람에게 소고기의 영양을	원료가 비싸 15년 동안 진기한 음식 / 대히트 뒤에도 영양은 대부분 빠짐
소고기가 싼 까닭	우루과이(아르헨티나 · 브라질처럼) – 가죽 산업의 부산물	냉장선이 없어 유럽 · 북미로 고기를 수출할 수 없었음
콘드 비프	'제대로 된' 요리법 – 양지머리 · 소금 절임	LEMCO – 더 싼 부위를 다짐 · 통조림 → 더 오래 · 더 멀리
corn의 뜻	비교적 새 미국 용법 – 옥수수	옛 영국 용법 – 모든 곡물(콘드 비프 · 콘 익스체인지 · 곡물법)
곡물법의 득실	농업 지주 · 곡물을 기르는 자본가 농민(지대 · 이윤 감소)	도시민 · 농업 노동자 · 제조업 자본가(싼 식량 · 낮은 임금 · 더 많은 투자)
자유무역의 기원	프리드먼 · 통념 – 1846 폐지 = 마지막 승리 ·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 · 번영	저자 – 규제가 영국의 지배를 낳음 · 1860년에야 자유무역 · 라틴아메리카가 먼저
19세기의 자유무역	스스로 고른 나라 –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	강요된 나라 – 불평등 조약의 약한 나라 · 식민지
조약이 끝난 뒤	라틴아메리카 – 1870~1880년대에 자유무역을 버림	일본 – 1910년대 공업 관세 평균 30% 안팎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오늘의 무역 체제	형식 — 조약 만료 · 탈식민 · WTO 한 나라 한 표(1995~)	실제 — 의제 설정 · 유리한 규칙 · 원조와 대출 조건 · 소프트 파워
개발도상국의 관세율	WTO 규칙상 허용 — 20% · 30% 또는 그 이상	실제 적용 — 평균 10% 안팎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World Cup	브라질 **5회**(최다) · 이탈리아 **4회**(인구 **6,100만** vs 브라질 **2억 1,200만**) · 각주 i: 독일도 4회, 네 번째 우승 땐 인구 **8,000만** 넘음 · 앞선 세 번(**1954** · **1974** · **1990**)은 이탈리아와 인구가 비슷한 서독
Uruguay(축구)	수아레스(기이하게도 깨무는 것으로 악명)의 나라 · 인구 **350만** · **1930년** 첫 대회 · 홈 몬테비데오 / **1950년** 당시 브라질 수도 리우에서 홈팀을 꺾음(가장 큰 이변 가운데 하나라 할 만한) · 브라질 인구라면 **121회**
Uruguay(시민권)	**1912년**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여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을 청구할 권리 · **1917년** 여성 참정권(세계 최초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 · **2013년** 세계 최초 마리화나 합법화
70~71쪽 각주 ii	**1973~1985년** 잔혹한 군사 독재 · 그 대부분 기간 호세 무히카(대통령 **2010~15**)는 정치범
Uruguay(소고기)	1인당 소 마릿수 단연 1위 · **2004년** 모든 소를 추적할 수 있게 한 첫 나라 · 소고기 추출물을 처음 대량 생산 · 각주 iii: 맛이 꼭 최고라는 뜻은 아님(아르헨티나 소고기도 적어도 그만큼 · 피카냐)
Justus von Liebig	독일 과학자 · 식물 영양 연구 · 유기화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짐 · **1847년** 소고기 추출물 발명 · 원료가 비싸 **15년** 동안 소량 생산
Georg Christian Giebert	**1862년** · 우루과이에서 일하던 젊은 독일 철도 기술자 · 우루과이 생산 제안 / 소고기 = 가죽 산업의 부산물 · 각주 iv: 냉장선은 **1870년대** 발명, 20세기로 넘어갈 무렵에야 대량 투입
LEMCO	Liebig Extract of Meat Company · **1865년** 런던 설립 · 공장 = 프라이 벤토스(Friar Benedict, 근처 동굴에 살았다고 '전하는' 17세기 은자) · R&D 연구소 · 많은 역사가가 첫 다국적 식품 회사로 봄
Lemco / Oxo	가장 시시한 이름 · 세계적 대히트 · 싸고 편한 육수 · 영양은 대부분 빠짐(단백질 · 지방 제거) · **1908년** 말린 큐브 → 옥소
corned beef	소금에 절인 소고기 · 유럽에 수백 년 · LEMCO **1873년** 통조림 생산 · 양지머리보다 싼 부위를 다짐(아마 덜 좋은 부위를 못 알아보게) · 통조림 → 더 오래 · 더 멀리 수출
66쪽 ¶2	옥소 · 콘드 비프 = 유럽 노동계급의 주식 · 보어 전쟁 영국군 · 1차 대전 영국 · 독일군 · 스콧 · 섀클턴의 식량(샤피크 메그지, BBC) / 2차 대전 영국 민간인 · 군인의 단백질
Battle of the Atlantic	**1942년 4~9월** · 미국 → 영국(· 소련) 식량을 U보트가 상당량 격침 · 깨뜨릴 수 없다던 에니그마 암호 · 콘드 비프 = 영국 고기 배급의 **7분의 1**
El Anglo(71쪽 각주 v)	**1924년** 영국 베스티 그룹 인수 · Frigorífico Anglo del Uruguay(frigorífico = 냉장고) · **1960년대**까지 주요 세력 · **1979년** 가동 중단 ·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corn	옥수수 = 비교적 새 미국 용법 · 옛 영국 용법 = 모든 곡물 · 소금 알갱이(corns)로 절임(요즘은 소금물) · 콘 익스체인지(미국이면 Grain Exchange) · 각주 vi: 크루소 삽화의 옥수수(실제로는 쌀 · 보리)
Corn Laws	**1815년** 영국 곡물 생산자 보호(수입 관세 · 수입 금지) · 곡물법은 **15세기**부터 · 산업혁명 초 · 도시 인구 급증 → 도시민에게 몹시 싫은 것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nti-Corn Law League	**1838년** 하원의원 리처드 코브던 · 존 브라이트(대처의 정치적 영웅) · 비농업 집단의 지지 · **1846년** 폐지
Milton Friedman	20세기 가장 유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 · 아내 로즈와 Free to Choose · 폐지 = '마지막 승리' · 1차 대전까지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 · 극히 제한된 정부로의 이행
영국의 실제	1848년 **1,100개** 넘는 품목에 관세 · **1860년**에야 **50개** 미만 = 진정한 자유무역국 · 각주 vii: 1860년 세계 제조업 생산의 **20%** · 1870년 세계 공산품 무역의 **46%**
라틴아메리카	**1810~1830년대** 자유무역 채택(영국보다 수십 년 앞) · 독립 뒤 불평등 조약 · 관세 자주권 박탈 · 균일 관세 보통 **5%**(낮게는 **3%**) · **1870~1880년대** 조약 만료
71쪽 각주 viii	가장 중요한 '다른 것' = 치외법권(강한 나라 시민은 약한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음) · 천연자원 개발 이권(채굴권 · 벌목권)을 헐값에
불평등 조약(아시아)	**1830년대**부터 터키(오스만 제국) · 타이(시암) · 이란(페르시아) · 중국 / 일본 **1853년**부터(페리 제독의 포함 외교) → **1910년대** 만료 · 공업 관세 평균 **30%** 안팎
보호주의	유럽 대륙(네덜란드 · 스위스 제외) · 북미 / 미국 **1830년대~2차 대전** 평균 공업 관세 **35~50%** · 그 기간 대부분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
오늘의 체제	불평등 조약 **1950년대**까지 모두 만료 · **1980년대**까지 대부분 탈식민 · 식민 지배 아래 **60곳** 안팎 · **1995년**부터 WTO(같은 투표권) · 각주 ix: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거부권 · 세계은행 · IMF 미국 **18%** · **85%** 초다수
WTO와 힘	농업 보호 · 보조금에 더 적은 제한 · 현지 조달 요건 금지 / 개발도상국 공업 관세 실제 평균 **10%** 안팎(허용 **20%** · **30%** 또는 그 이상)
Vaclav Smil	직설적인 환경 과학자 · '소의 행성' · 각주 x: Numbers Don't Lie · 소의 생물량 = 사람의 **1.5배** · 코끼리의 **200배**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Beef」 (원서 PDF 64~70쪽) · 7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8-1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우루과이다 64쪽 ¶1~¶7 + 70~71쪽 각주 i · ii

원문 위치 원서 64쪽 ¶1~¶7 + 70~71쪽 각주 i · 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2 첫 문장	Many people would probably say Brazil, as it has won the most football World Cups – five.	숫자 5 · would probably(추측)
★	64쪽 ¶2 셋째 문장	only four times, but with a population that is less than one-third that of Brazil's (61 million against 212 million)	숫자 — 인구 비교 · that of
★	70쪽 각주 i	Germany has also won the Cup four times … (1954, 1974, and 1990) were as West Germany	내용 일치 — 이탈리아가 앞서는 까닭
◆	64쪽 ¶4 셋째 문장	the brilliant footballer who is, bizarrely, notorious for biting other players	밑줄 의미: 수아레스의 '악명'
★	64쪽 ¶5 첫~둘째 문장	only 3.5 million people … the first ever Cup in 1930 on its home turf, Montevideo	숫자 3.5 · 1930
▲	64쪽 ¶5 셋째 문장	in arguably one of the biggest upsets in the history of football	arguably — 단정 금지
◆	64쪽 ¶5 넷째 문장	If Uruguay had the population of Brazil,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혼합 가정법 · 밑줄 의미 1순위
▲	64쪽 ¶6	Two wins is a stupendous achievement for such a small nation, even if …	단수 동사 is · even if
◆	64쪽 ¶6	so, England fans, take comfort in the knowledge that …	저자의 농담 — 잉글랜드 팬
▲	64쪽 ¶7 첫 문장	Incredible though this achievement is, football isn't the only field (no pun intended)	형용사 + though · 말놀이 field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7 셋째~다섯째 문장	In 1912 … divorce without a specific cause … (in 1917) … In 2013 … marijuana	내용 일치 1순위 — 연도
★	70~71쪽 각주 ii	a brutal military dictatorship between 1973 and 1985 … José Mujica (president 2010–15)	단서 — 늘 옳은 편은 아니었음

내용

세계 최고의 축구 나라는 어디일까? 많은 사람이 아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다섯 번) 우승한 브라질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이탈리아는 어떤가? 우승은 네 번뿐이지만 인구가 브라질의 3분의 1도 안 된다(6,100만 대 2억 1,200만). 각주에 따르면 독일도 네 번 우승했지만, 네 번째 우승 때는 인구가 이탈리아보다 훨씬 많았고(8,000만 넘게) 앞선 세 번(1954 · 1974 · 1990년)은 인구가 이탈리아와 비슷한 서독으로서 거둔 것이어서 이탈리아가 여전히 앞선다. 그러나 정답은 이탈리아도 아닌 우루과이다. 축구로 치면, 뛰어난 선수이면서 기이하게도 다른 선수를 깨무는 것으로 악명 높은 루이스 수아레스의 나라다. 인구가 350만 명뿐인 우루과이는 월드컵에서 두 번 우승했다. 1930년 홈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첫 대회에서 우승했고, 1950년에는 당시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홈팀을 꺾고 다시 우승했다.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이변 가운데 하나라고 할 만하다. 우루과이의 인구가 브라질만큼이었다면 두 번이 아니라 121번 우승했을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드컵 우승보다 100번 많은 수다. 첫 우승이 거의 한 세기 전이고 마지막 우승도 두 세대 전이라 해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 두 번의 우승은 엄청난 업적이다(그러니 잉글랜드 팬들은 자기 팀보다 더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우승한 팀의 팬도 있다는 데서 위안을 얻으라고 저자는 덧붙인다). 이 업적이 놀랍긴 하지만 우루과이가 뛰어난 분야(field, 말장난은 아니다)는 축구만이 아니다. 정치적 · 시민적 권리에서도 인상적인 기록이 있다. 1912년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을 청구할 권리를 얻었고, 1917년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세계 최초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다만 각주에서 저자는 이 나라가 늘 옳은 편에 서 있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며,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잔혹한 군사 독재가 있었고 그 기간 대부분 호세 무히카(2010~15년 대통령)가 정치범이었다고 밝힌다.

어법

- **Many people would probably say Brazil, as it has won the most football World Cups – five.** : would = 완곡한 추측(아마 ~라고 말할 것이다). as = 이유 접속사. has won = 현재완료(지금까지의 우승 횟수).
- **It has won the Cup only four times, but with a population that is less than one-third that of Brazil's** : that of = the population of(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지시대명사). 원서 표기 that of Brazil's는 '브라질의 인구'라는 뜻으로 읽는다. less than one-third = 3분의 1이 안 되는.
- **the brilliant footballer who is, bizarrely, notorious for biting other players** : who = 주격 관계대명사. 콤마 사이 bizarrely = 문장 부사 삽입(기이하게도). be notorious for + 동명사 = ~으로 악명 높다.
- **If Uruguay had the population of Brazil,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 혼합 가정법: if절은 가정법 과거(had — 인구가 적다는,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의 반대), 주절은 가정법 과거완료(would have won — 지금까지 실제로 이긴 횟수의 반대).
- **Two wins is a stupendous achievement for such a small nation, even if its first win was nearly a century ago** : 주어 Two wins를 '두 번 우승한 일'이라는 하나의 성과로 보아 단수 동사 is. such + a + 형용사 + 명사. even if = 비록 ~라 하더라도.
- **Incredible though this achievement is, football isn't the only field (no pun intended) in which Uruguay has excelled.** : 형용사 + though + S + V = 양보(Though this achievement is incredible).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excel in a field). no pun intended = field(경기장 · 분야)를 노린 말장난이 아니라는 덧붙임.

- **In 1912, it became the first Latin American country where women won the right to file for divorce without a specific cause.** :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country). the right to V = ~할 권리. file for divorce = 이혼을 청구하다.
- **In 2013, it became the first country to legalize marijuana.** : the first + 명사 + to부정사 = ~한 첫 번째 (나라). to legalize =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ootballing (a.)	축구의	—	—
notorious	악명 높은	infamous	renowned
bizarrely	기이하게도	strangely	—
home turf	홈그라운드	home ground	—
clinch	(우승을) 따내다	secure	lose
upset (n.)	이변	shock	—
stupendous	엄청난	tremendous	modest
take comfort in	~에서 위안을 얻다	be consoled by	—
excel	뛰어나다	shine	lag
civic	시민의	civil	—
file for divorce	이혼을 청구하다	sue for divorce	—
legalize	합법화하다	decriminalize	ban
dictatorship	독재	tyranny	democracy
political prisoner	정치범	prisoner of conscience	—

내용 일치 브라질 최다 5회 · 이탈리아 4회(인구 6,100만 vs 2억 1,200만, 3분의 1 미만) · 각주 i: 독일도 4회, 앞선 세 번(1954 · 1974 · 1990)은 서독 · 정답 우루과이 · 수아레스(깨무는 것으로 악명) · 인구 350만 · 1930 몬테비데오(첫 대회) · 1950 리우(이변이라 할 만한) · 브라질 인구라면 121회 · 1912 이혼 청구권(라틴아메리카 최초) · 1917 여성 참정권(최초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 · 2013 마리화나(세계 최초) · 각주 ii: 1973~1985 군사 독재 · 무히카(2010~15 대통령)는 정치범. **밑줄 의미**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 인구에 견주면 우루과이의 두 번은 엄청난 성과 / take comfort in the knowledge = 잉글랜드보다 더 오래 우승 못 한 팀도 있으니 위안 삼으라는 농담 / no pun intended = field(경기장 · 분야) 말장난이 아님 / on the side of the angels(각주 ii) = 늘 옳은 편 / 64쪽 ¶2 It(has won the Cup only four times) = Italy · 64쪽 ¶5 It(won the first ever Cup) = Uruguay · 64쪽 ¶7 It(also has impressive records) = Uruguay.

> **한 줄 요약** 인구 350만의 우루과이는 월드컵 두 번 우승으로 세계 최고의 축구 나라라 할 만하고, 시민권에서도 앞선 기록을 가졌다.

8-2 리비히의 소고기 추출물과 첫 다국적 식품 회사 65쪽 ¶1~¶4 + 71쪽 각주 iii · iv

원문 위치 원서 65쪽 ¶1~¶4 + 71쪽 각주 iii · i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1 첫 문장	Less glamorous than football, politics or civil rights, perhaps, the beef industry is another area	앞 단락과의 연결 · perhaps
★	65쪽 ¶1 둘째 문장	the country with by far the highest number of cattle per (human) capita	by far + 최상급
★	65쪽 ¶1 셋째 문장	the first country to have made every single one of its cattle traceable (in 2004)	숫자 2004 · 완료부정사
◆	71쪽 각주 iii	This is not to say that Uruguayan beef necessarily tastes the best.	단정 금지 — 부분 부정
★	65쪽 ¶1 넷째 문장	the first country to mass-produce beef extract … ('liquid beef') … Oxo	제목 문항의 바탕
★	65쪽 ¶2 첫 문장	In 1847, Justus von Liebig … invented beef extract	인물 · 연도 — 서답형
▲	65쪽 ¶2 셋째 문장	the raw material was too expensive to make his extract affordable for most people	too ~ to · make + O + 형용사
◆	65쪽 ¶2 셋째 문장	it remained a culinary curiosity produced in small batches for the next fifteen years	밑줄 의미: 보기 드문 진기한 음식
★	65쪽 ¶3 첫 문장	in 1862, a young German railway engineer working in Uruguay, Georg Christian Giebert	인물 — 지칭 문항의 짝
★	65쪽 ¶3 둘째 문장 + 71쪽 각주 iv	essentially a by-product of the leather industry … in the absence of refrigerator ships	까닭 — 소고기가 싼 이유
★	65쪽 ¶4 첫~둘째 문장	LEMCO was established in London … Fray Bentos (Friar Benedict in English)	장소 — 런던 ↔ 프라이 벤토스
▲	65쪽 ¶4 둘째 문장	named after a seventeenth-century hermit who reputedly had lived in a nearby cave	전언 reputedly · 과거완료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4 셋째 문장	in those days a facility owned by only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companies, like ... BASF	문장 삽입 문항의 자리
★	65쪽 ¶4 넷째 문장	Many historians consider LEMCO ... to be the world's first multinational food company	역사가들의 평가 · consider O to be

내용

축구 · 정치 · 시민권보다 덜 화려할지 모르지만, 소고기 산업도 우루과이가 세계 정상에 서 온 분야다. 지금 우루과이는 (사람) 1인당 소의 수가 단연 가장 많은 나라다. 양만이 아니라 질도 그렇다. 우루과이는 2004년 모든 소를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첫 나라다. 각주에서 저자는 이것이 우루과이 소고기가 꼭 가장 맛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자기의 한정된 경험으로는 아르헨티나 소고기도 적어도 그만큼 맛있고 브라질 특유의 부위 피카냐도 몹시 좋아한다고 덧붙인다. 역사적으로 우루과이는 소고기 추출물을 처음 대량 생산한 나라다. 소고기 추출물은 육수를 걸쭉한 액체로 졸인 것('liquid beef')으로 시작해 나중에 상징적인 고형 육수 옥소가 되었다. 1847년, 식물 영양 연구로 유명하고 유기화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독일 과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소고기 추출물을 발명했다. 리비히는 진짜 소고기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추출물로 소고기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원료가 너무 비싸 대부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값으로 만들 수 없었고, 추출물은 그 뒤 15년 동안 소량만 만드는 진기한 음식으로 남았다. 1862년 우루과이에서 일하던 젊은 독일 철도 기술자 게오르크 크리스티안 기베르트가 리비히의 발명을 알게 되어, 우루과이에서 추출물을 생산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우루과이에서는 (아르헨티나 · 브라질처럼) 소고기가 몹시 쌌다. 냉장선이 없어 유럽 · 북아메리카의 잠재 시장으로 고기를 수출할 수 없었으므로 소고기는 사실상 가죽 산업의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각주에 따르면 냉장선은 1870년대에 발명되었지만 20세기로 넘어갈 무렵에야 대량으로 쓰였다. 1865년 런던에 리비히 고기 추출물 회사(LEMCO)가 세워졌다. 생산 시설은 우루과이의 소도시 프라이 벤토스(영어로 Friar Benedict)에 들어섰는데, 이 이름은 근처 동굴에 살았다고 전하는 17세기의 은자에게서 따왔다. 프라이 벤토스 공장에는 과학 지식을 써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품과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자체 연구 개발(R&D) 연구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독일의 거대 화학 기업 BASF(4장 참조)처럼 기술이 가장 앞선 회사만 가진 시설이었다. 많은 역사가는 뒤에 유럽 · 남아메리카 ·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한 LEMCO를 세계 최초의 다국적 식품 회사로 본다(다국적 기업은 9장 참조).

어법

- **Less glamorous than football, politics or civil rights, perhaps, the beef industry is another area in which Uruguay has been at the top of the international league.** : 문두의 형용사구(Less glamorous than ~)가 주어 the beef industry를 설명한다(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다).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perhaps = 저자의 조심스러운 평가.
- **Currently, it is the country with by far the highest number of cattle per (human) capita.** : by far + 최상급 = 단연 가장 ~한. cattle = 복수 취급 집합 명사. per capita = 1인당.
- **Uruguay is the first country to have made every single one of its cattle traceable (in 2004).** : the first + 명사 + to부정사. to have made = 완료부정사(이미 이룬 일). make + O + 형용사 보어(traceable).
- **Liebig thought his extract would give access to the nutrients in beef to poor people who could not afford the real thing.** : thought 뒤 명사절(that 생략) → 시제 일치 would. give access to A to B = B에게 A를 얻을 길을 주다. who = 주격 관계대명사.
- **the raw material was too expensive to make his extract affordable for most people** : too + 형용사 + to V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make + O + 형용사(affordable).

- **Giebert proposed to produce Liebig's extract in Uruguay, where (as in Argentina and Brazil) beef was very cheap, since it was essentially a by-product of the leather industry** : propose + to V = ~하자고 제안하다.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Uruguay). since = 이유.
- **named after a seventeenth-century hermit who reputedly had lived in a nearby cave** : named after = ~의 이름을 딴(과거분사 후치). had lived = 과거완료(이름이 붙기 전의 일). reputedly = ~라고 전한다(전언 — 사실 단정이 아님).
- **Many historians consider LEMCO, subsequently with operations in multiple countries …, to be the world's first multinational food company** : consider + O + to be + 보어 = O를 ~로 여기다. 콤마 사이 = LEMCO에 대한 삽입 설명. 역사가들의 평가로 옮길 것.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glamorous	화려한	glitzy	dull
per capita	1인당	per head	—
traceable	추적할 수 있는	trackable	untraceable
extract (n.)	추출물	essence	—
iconic	상징적인	emblematic	—
nutrient	영양소	nourishment	—
affordable	(값이) 알맞은	inexpensive	unaffordable
curiosity	진기한 것	novelty	—
batch	한 번에 만드는 양	lot	—
by-product	부산물	spin-off	main product
in the absence of	~이 없어서	for lack of	in the presence of
hermit	은자	recluse	—
commercially viable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profitable	unviable
multinational	다국적의	transnational	domestic

내용 일치 1인당 소 마릿수 단연 1위 · 2004 모든 소 추적(첫 나라) · 각주 iii: 맛이 꼭 최고는 아님 · 소고기 추출물 첫 대량 생산 → liquid beef → 옥소 · 1847 리비히 발명(독일 과학자 · 유기화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짐) · 가난한 사람에게 영양을 · 너무 비싸 15년 동안 소량 · 1862 기베르트(우루과이의 젊은 독일 철도 기술자) · 가죽 산업의 부산물 · 냉장선 없음(각주 iv: 1870년대 발명) · 1865 런던 LEMCO · 공장 = 프라이 벤토스 · 은자(reputedly) · R&D 연구소(BASF 같은 최첨단 기업만) · 첫 다국적 식품 회사(많은 역사가의 평가). **밑줄 의미** Less glamorous … perhaps = 축구 · 정치보다 덜 화려하지만 / a culinary curiosity = 널리 먹지 못하는 진기한 음식 / 65쪽 ¶1 it(is the country) = Uruguay · 65쪽 ¶2 his(extract) = Liebig · 65쪽 ¶3 it(was essentially a by-product) = beef · 65쪽 ¶4 who(reputedly had lived) = 17세기의 은자.

> **한 줄 요약** 1인당 소가 가장 많은 우루과이는 리비히가 발명한 소고기 추출물을 처음 대량 생산했고, 그 회사 LEMCO는 첫 다국적 식품 회사로 꼽힌다.

8-3 이름은 시시해도 세계를 먹인 옥소와 콘드 비프 65쪽 ¶5 ~ 66쪽 ¶2 + 71쪽 각주 v

원문 위치 원서 65쪽 ¶5 ~ 66쪽 ¶2 + 71쪽 각주 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5 첫 문장	initially called – very imaginatively – Lemco (duh!)	밑줄 의미: 반어(상상력 '넘치는')
▲	65쪽 ¶5 둘째 문장	Despite having the lamest name in the history of human commerce, the product was a major hit	despite + 동명사
★	65쪽 ¶5 셋째 문장	if not supplying the nutrients that von Liebig initially had thought it would	내용 불일치 1순위 — 영양은 대부분 빠짐
▲	65쪽 ¶5 셋째 문장	it turned out that the extraction process removed most of protein and fat, and with them most nutrients	it turns out that
★	65쪽 ¶5 넷째 문장	turned into a dried cube in 1908 and renamed Oxo	숫자 1908 · 서답형
★	65쪽 ¶6	canned corned beef, which it started producing in 1873	숫자 1873 · 순서 문항
★	66쪽 ¶1 첫~둘째 문장	had been around for several centuries … But LEMCO made it accessible to a much larger proportion of humanity	순서 문항의 고리
▲	66쪽 ¶1 셋째 문장	less expensive cuts than the brisket … (presumably to make it impossible to discern the less good cuts)	presumably — 추측 · 가목적어 it
▲	66쪽 ¶1 넷째 문장	By canning it, LEMCO made corned beef last much longer than the original salt-curing technology had allowed	make + O + 동사원형
★	66쪽 ¶2 첫 문장	'became staples for working-class people across Europe for whom meat had previously been a luxury item	내용 일치 — 노동계급의 주식
★	66쪽 ¶2 둘째 문장	rations for British soldiers during the Boer War … polar explorers like Robert Falcon Scott and Ernest Shackleton	인물 — 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6쪽 ¶2 둘째 문장 + 71쪽 각주 v	Shafik Meghji … reporting on the Fray Bentos World Heritage site for the BBC	인용의 출처 · El Anglo
★	66쪽 ¶2 넷째 문장	Between April and September of 1942 … one-seventh of the British meat ration	숫자 — 1942 · 7분의 1
▲	66쪽 ¶2 넷째 문장	until the British cracked the supposedly uncrackable Enigma code	supposedly — '그렇다던'

내용

LEMCO의 소고기 추출물은 처음에 '아주 상상력 넘치게도' 레므코(Lemco)라고 불렸다(저자는 '번하지!'라고 덧붙인다). 인류 상업 역사상 가장 시시한 이름이었는데도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만족스러운 소고기 육수를 싸고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리비히가 처음에 기대한 영양소까지 주지는 못했다. 알고 보니 추출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 대부분이, 그와 함께 영양소 대부분이 빠져나갔다. 1908년 추출물은 말린 큐브로 바뀌어 옥소(Oxo)라는 새 이름을 얻으면서 더욱 편리해졌다. 소고기 추출물로 성공한 직후 LEMCO는 세계를 휩쓴 또 다른 제품, 통조림 콘드 비프를 내놓아 1873년부터 생산했다. 소금에 절인 소고기인 콘드 비프는 유럽에 수백 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LEMCO는 더 싼 재료와 새로운 보존 기술을 함께 써서 콘드 비프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했다. '제대로 된' 요리법처럼 양지머리를 쓰지 않고 더 싼 부위를 다져 쓴 덕에(아마 덜 좋은 부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루과이의 싼 소고기는 더 싸졌다. 통조림으로 만들어 원래의 소금 절임 기술보다 훨씬 오래가게 했고, 그래서 더 먼 곳까지 수출할 수 있었다. BBC에 프라이 벤토스 세계유산을 보도한 수상 경력의 여행 작가 샤피크 메그지의 말을 빌리면, 옥소 큐브와 통조림 콘드 비프는 그때까지 고기가 사치품이던 유럽 전역의 노동계급에게 주식이 되었고, 보어 전쟁의 영국군, 1차 세계대전의 영국군 · 독일군, 그리고 로버트 팰컨 스콧과 어니스트 섀클턴 같은 극지 탐험가에게 값싸고 오래가며 들고 다니기 쉬운 식량이 되었다. 그 뒤 2차 세계대전 때 콘드 비프는 군인뿐 아니라 영국 민간인에게도 단백질을 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른바 대서양 전투가 한창이던 1942년 4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영국(과 소련)으로 가는 식량 수송의 상당 부분이 (영국이 깨뜨릴 수 없다던 독일 해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풀기 전까지) 독일 U보트에 격침되었는데, 이때 통조림 콘드 비프는 영국 고기 배급의 7분의 1을 차지했다. 각주에 따르면 1924년 LEMCO는 영국의 베스티 그룹에 인수되어 Frigorífico Anglo del Uruguay(줄여서 El Anglo)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무렵 냉동 · 냉장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이름이다(frigorífico는 스페인어로 '냉장고'). El Anglo는 1960년대까지 세계 식품 산업의 주요 세력이었다가 쇠퇴했고, 1979년 가동을 멈춘 그 공장 · 연구소 · 사무실 · 숙소 단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다.

어법

- **LEMCO's beef extract was initially called – very imaginatively – Lemco (duh!).** : be called + 보어 = call O C의 수동(O가 C라고 불리다). 대시 사이 very imaginatively = 반어(상상력이라고는 없다).
- **Despite having the lamest name in the history of human commerce, the product was a major hit worldwide.** : despite + 동명사(having). 전치사 despite 뒤에는 절이 오지 않는다(despite it had는 오답). the + 최상급 + in ~.
- **It provided a convenient and cheap way of making satisfying beef broth, if not supplying the nutrients that von Liebig initially had thought it would** : if not + -ing = ~까지는 아니더라도. had thought = 과거완료(제품이 나오기 전 리비히의 생각). it would (supply) = 반복되는 동사 생략.
- **it turned out that the extraction process removed most of protein and fat, and with them most nutrients** : it turns out that = 알고 보니 ~였다. with them = 그것들(단백질 · 지방)과 함께.

- **The extract was made even more convenient when it was turned into a dried cube in 1908 and renamed Oxo.** : be made + 형용사 = make O C의 수동. even + 비교급 = 훨씬 더. was turned와 (was) renamed가 병렬.
- **Corned beef – beef cured in salt – had been around for several centuries, if not longer, in Europe.** : had been around = 과거완료(LEMCO 이전부터 있었음). cured = 과거분사 후치. if not longer =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 **By canning it, LEMCO made corned beef last much longer than the original salt-curing technology had allowed** : by + 동명사 = 수단. make + O + 동사원형(last). much + 비교급. had allowed = 과거완료(그전까지의 기술).
- **working-class people across Europe for whom meat had previously been a luxury item** : for whom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working-class people). had been = 과거완료(그 전까지는).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aginatively	상상력 있게	creatively	unimaginatively
lame	시시한, 어설픈	feeble	impressive
hit (n.)	대성공	success	flop
broth	육수	stock	—
cure (v.)	(소금에) 절이다	preserve	—
accessible	손에 넣기 쉬운	available	inaccessible
proportion	비율	share	—
preservation	보존	conservation	decay
mince (v.)	잘게 다지다	grind	—
discern	알아보다	detect	overlook
staple (n.)	주식, 필수품	basic food	luxury
ration (n.)	배급 식량	allowance	—
substantial	상당한	considerable	negligible
crack (v.)	(암호를) 풀다	break	—

내용 일치 첫 이름 = 레므코(가장 시시한 이름) · 세계적 대히트 · 싸고 편한 육수 · 영양은 대부분 빠짐(단백질 · 지방 제거) · 1908 말린 큐브 → 옥소 · 1873 통조림 콘드 비프 · 콘드 비프 = 소금 절임, 유럽에 수백 년 · 양지머리보다 싼 부위 · 다짐(presumably) · 통조림 → 더 오래 · 더 멀리 · 노동계급의 주식 · 보어 전쟁 · 1차 대전 영국 · 독일군 · 스콧 · 섀클턴 · 메그지(BBC) · 2차 대전 민간인 · 군인 · 1942년 4~9월 고기 배급의 7분의 1 · 각주 v: 1924 베스티 · El Anglo · 1979 중단 · 2015 세계유산. **밑줄 의미** very imaginatively … (duh!) = 회사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을 비꼰 반어 / the lamest name in the history of human commerce = 과장된 놀림 / if not supplying the nutrients = 영양소까지는 주지 못했지만 / supposedly uncrackable = 깨뜨릴 수 없다던(실제로는 풀림) / 65쪽 ¶5 It(provided) = 레므코(추출물) · 65쪽 ¶6 it(started producing) = LEMCO · 66쪽 ¶1 them(mincing them) = 더 싼 부위 · 66쪽 ¶2 They(also provided) = 옥소 큐브와 통조림 콘드 비프.

> **한 줄 요약** LEMCO의 옥소와 통조림 콘드 비프는 싸고 오래가는 고기로 유럽의 노동자와 군인 · 탐험가를 먹였다.

8-4 corn은 옥수수가 아니다 — 곡물법과 그 폐지 66쪽 ¶3 ~ 67쪽 ¶2 + 71쪽 각주 vi

원문 위치 원서 66쪽 ¶3 ~ 67쪽 ¶2 + 71쪽 각주 v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6쪽 ¶3 첫 문장	Corned beef isn't called that because it contains maize	부정의 범위 — not … because
★	66쪽 ¶3 둘째~셋째 문장	the relatively new American usage … In the older British usage, the word means 'grain'	대조 — 미국 ↔ 영국
▲	66쪽 ¶3 넷째 문장	which used to be done with 'corns' (that is, grains) of salt, although these days brine is typically used	used to + 수동
◆	71쪽 각주 vi	Some illustrations for … Robinson Crusoe … contain neatly planted rows of maize	혼란의 예 — 실제로는 쌀 · 보리
★	66쪽 ¶4 둘째 문장	the Corn Exchange, which is where the grain market used to be held … (… the Grain Exchange)	어법 (A)(B)(C) 문항의 바탕
▲	66쪽 ¶4 셋째 문장	Quite a lot of British people must have also learned about the Corn Laws	must have p.p.(추측)
★	66쪽 ¶5 첫 문장	introduced in 1815 to provide protection to British grain producers, such as import tariffs or an import ban	숫자 1815 · 보호의 수단
★	66쪽 ¶5 둘째 문장	dating back to the fifteenth century … particularly controversial because it came at the dawn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까닭 — 산업혁명
◆	66쪽 ¶5 셋째 문장	To the city-dwellers … who had to buy – rather than grow – their grains, the Corn Laws were an anathema	밑줄 의미: 몹시 싫은 것
▲	67쪽 ¶1 첫 문장	Without the Corn Laws, its critics argued, Britain could import cheaper foreign grains, enabling …	Without + 가정 · 분사구문
★	67쪽 ¶1 둘째 문장	capitalists would reap more profits, as they could pay lower wages … invest mor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비판자들의 논리 — 어법 문항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7쪽 ¶1 셋째 문장	even if it meant less rental income for agricultural landlords and lower profits for grain-growing capitalist farmers	손해 보는 쪽
★	67쪽 ¶2 첫 문장	formed in 1838 by two MPs ... Richard Cobden and John Bright ... heroes of Margaret Thatcher	연도 · 인물 — 서답형
▲	67쪽 ¶2 둘째 문장	Backed by non-agrarian groups, whose number and power were swelling ... managed to repeal the law in 1846	분사구문 · 숫자 1846

내용

콘드 비프라는 이름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이 corn이라는 말로 떠올리는 옥수수가 들어 있어서 붙은 것이 아니다. corn을 옥수수(maize)와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미국식 용법이다. 옛 영국식 용법에서 corn은 옥수수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곡물'을 뜻한다. 콘드 비프라는 이름은 이 고기를 만드는 절임 방식에서 왔는데, 예전에는 소금 '알갱이(corns)'로 절였다(요즘은 대개 소금물을 쓴다). 각주에서 저자는 corn의 뜻이 바뀌어 큰 혼란이 생겼다며,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18세기 소설『로빈슨 크루소』의 몇몇 삽화에는 크루소가 corn을 심는다고 말하는 대목에 옥수수가 가지런히 줄지어 심겨 있지만 실제로 그가 심은 것은 쌀과 보리였다고 말한다(크루소의 식단은 3장 참조).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영국인은 corn의 옛 용법을 자주 접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영국인이 콘 익스체인지(Corn Exchange)라는 건물이 있는 도시에 사는데, 옛날 곡물 시장이 열리던 곳이다(미국이라면 Grain Exchange라고 불렀을 것이다). 또 꽤 많은 영국인이 중등학교 역사 시간에 곡물법(Corn Laws)을 배웠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곡물법은 1815년 영국 곡물 생산자를 보호하려고 도입한 것으로, 값싼 외국 곡물에 매기는 수입 관세나 수입 금지 같은 조치였다. 영국에는 15세기부터 곡물법이 숱하게 있었지만, 1815년 법은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어 제조업이 빠르게 커지고 그 결과 도시 인구가 급증하던 때에 나와 특히 논란이 되었다. 곡물을 기르지 않고 사 먹어야 하는 도시민(공장 노동자 · 사무원 · 가게 주인 · 자본가)에게 곡물법은 몹시 싫은 것이었다. 비판자들은 곡물법이 없으면 영국이 더 싼 외국 곡물을 들여와 도시민(그리고 농업 노동자처럼 식량을 사야 하는 많은 농촌 사람까지)이 더 싸게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량이 싸지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덜 주어도 되므로 더 많은 이윤을 거두고, 당시 나라의 번영을 이끌던 제조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 농업 지주의 지대 수입과 곡물을 기르는 자본가 농민의 이윤이 줄더라도 나라 전체는 더 나아진다는 것이 곡물법 반대자들의 주장이었다. 1838년 두 하원의원 리처드 코브던과 존 브라이트가 유명한 반곡물법 동맹을 만들었다. 이 두 사람은 자유화 열정으로 알려진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영웅이기도 했다. 산업혁명으로 수와 힘이 불어나던 비농업 집단의 지지를 받은 동맹은 아주 효과적인 운동을 벌여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어법

- **Corned beef isn't called that because it contains maize** : not ~ because = '~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은 아니다'(부정이 because절에 걸린다). called that = 그렇게 불리다.
- **maize (or sweetcorn), which is what the word 'corn' means to most people these days** : which = 계속적 용법(앞의 maize를 받음).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하는 것).
- **which used to be done with 'corns' (that is, grains) of salt, although these days brine is typically used instead** : used to + 수동 부정사(be done) = 예전에는 ~되었다. be used to V(~하는 데 쓰이다), be used to -ing(~에 익숙하다)와 구별.

- **Many of them live in a town with a building called the Corn Exchange, which is where the grain market used to be held in the old days** : called = 과거분사 후치. which is where ~ = 계속적 which + 보어 where절(~하던 곳). used to be held = 예전에 열리곤 했다.
- **Quite a lot of British people must have also learned about the Corn Laws in their history lessons** :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 단정이 아님).
- **Although Britain had had numerous Corn Laws dating back to the fifteenth century, the 1815 legislation was particularly controversial** : had had = 과거완료(1815년 이전부터). dating back to = 현재분사 후치(~로 거슬러 올라가는).
- **Without the Corn Laws, its critics argued, Britain could import cheaper foreign grains, enabling its urban population … to eat more cheaply** : Without ~ + could = 가정(곡물법이 없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its critics argued 삽입. enabling = 결과의 분사구문. enable + O + to V.
- **Backed by non-agrarian groups, whose number and power were swelling thanks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League … managed to repeal the law in 1846.** : Backed by = 수동 분사구문(Being 생략).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 manage to V = 용케 ~해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ynonym	동의어	equivalent	antonym
usage	용법	use	—
brine	소금물	salt water	—
encounter	접하다	come across	avoid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contentious	uncontroversial
dawn (n.)	시작, 여명	beginning	end
anathema	몹시 싫은 것	abomination	—
reap	거두다	gain	—
propel	추진하다, 이끌다	drive	hinder
landlord	지주	landowner	tenant
zeal	열정	passion	apathy
agrarian	농업의	agricultural	industrial
swell	불어나다	grow	shrink
repeal	폐지하다	abolish	enact

내용 일치 콘드 비프 ≠ 옥수수 · corn = 옥수수는 비교적 새 미국 용법 · 옛 영국 용법 = 모든 곡물 · 소금 알갱이로 절임(요즘은 소금물) · 각주 vi: 크루소 삽화의 옥수수(실제로는 쌀 · 보리) · 콘 익스체인지(미국이면 Grain Exchange) · 곡물법 1815 · 수입 관세 · 수입 금지 · 15세기부터 · 산업혁명 초라 논란 · 도시민에게 몹시 싫은 것 · 비판자: 싼 곡물 → 낮은 임금 → 더 많은 이윤 · 투자 · 지주 · 자본가 농민은 손해 · 1838 반곡물법 동맹(코브던 · 브라이트, 대처의 영웅) · 비농업 집단 · 1846 폐지. **밑줄 의미** an anathema = 곡물을 사 먹어야 하는 도시민에게 몹시 싫은 것 / buy – rather than grow = 기르지 않고 사 먹어야 하는 / the nation as a whole would be better off = 지주가 잃어도 나라 전체는 이득이라는 비판자들의 주장 / 66쪽 ¶4 they(have frequently encountered) = most Brits · 67쪽 ¶1 its critics = 곡물법(1815년 법)의 비판자 · they(could pay lower wages) = capitalists.

한 줄 요약 콘드 비프의 corn은 '곡물'이라는 옛 뜻이며, 1815년의 곡물법은 반곡물법 동맹의 운동으로 1846년에 폐지되었다.

8-5 자유무역의 '기원 이야기'와 그 구멍 67쪽 ¶3 ~ 68쪽 첫 줄 + 71쪽 각주 vii

원문 위치 원서 67쪽 ¶3 ~ 68쪽 첫 줄 + 71쪽 각주 v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7쪽 ¶3 첫 문장	'the final victory' in 'the battle to end government restrictions on industry and trade', according to Milton Friedman	프리드먼의 말 — 저자의 말 아님
★	67쪽 ¶3 첫 문장	in Free to Choose, his extremely influential book written with his wife, Rose Friedman	책 · 공저자
◆	67쪽 ¶3 둘째 문장	ushered in three-quarters of a century of complete free trade lasting until the outbreak of World War I	인용 — 뒤에서 반박할 대상
★	67쪽 ¶3 셋째 문장	According to the prevailing view … resulted in a period of unprecedented global prosperity	통념 — 사실 단정 금지
▲	67쪽 ¶3 셋째 문장	until it got regrettably disrupted by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ies	get + p.p. 수동
★	67쪽 ¶4 첫 문장	this 'origin story' of free trade is full of inaccuracies and myths	저자의 주장 — 전환점
★	67쪽 ¶4 둘째 문장	precisely what had enabled the global dominance of the British manufacturing sector … (see 'Prawn')	5장과 연결 · 관계대명사 what
★	71쪽 각주 vii	In 1860, Britain produced 20% of world manufacturing output … in 1870 … 46% of world trade	숫자 20% · 46%
◆	67쪽 ¶4 셋째 문장	Let us also ignore the 'detail' that Britain did not actually make a full transition	따옴표 'detail' — 작지 않은 사실
★	67쪽 ¶4 넷째 문장	Over 1,100 items … in 1848 – it was only by 1860 … fewer than fifty items	빈칸 문항 · 숫자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7쪽 ¶4 넷째 문장	it was only by 1860 that Britain could be described as a truly free-trading nation	it ~ that 강조
◆	67쪽 ¶5 첫 문장	Even if we ignore both these 'inconvenient truths', there is a glaring hole in the creation myth	밑줄 의미: 불편한 진실 · 뚜렷한 구멍
★	67쪽 ¶5 둘째~셋째 문장 + 68쪽 첫 줄	Britain wasn't actually even the first …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 between the 1810s and the 1830s	True/False 1순위

내용

20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자유시장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아내 로즈 프리드먼과 함께 쓴, 큰 영향을 끼친 책『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에서 곡물법 폐지를 '산업과 무역에 대한 정부 규제를 끝내기 위한 싸움'의 '마지막 승리'라고 불렀다. 프리드먼 부부의 말로는, 곡물법 폐지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까지 이어진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열었고, 수십 년 전에 시작된 '극히 제한된 정부'로의 이행을 마무리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영국의 주도 아래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위에 세워진 이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는 전례 없는 세계 번영의 시대를 낳았고, 그 번영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만든 경제적 · 정치적 불안정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뜨릴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이야기가 다 그렇듯 자유무역의 이 '기원 이야기'도 부정확함과 신화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우선 프리드먼 부부가 역효과를 낸다고 비난한 '무역과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영국이 자유무역을 받아들이기 직전까지 영국 제조업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해 준 바로 그것이었다(5장 참조). 각주에 따르면 1860년 영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했고, 1870년에는 세계 공산품 무역의 46%를 차지했다. 또 영국은 곡물법 폐지로 자유무역에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다. 1848년에도 1,100개가 넘는 품목에 관세가 매겨졌고(그 가운데 여전히 아주 높은 것도 많았다), 관세 품목이 50개 미만이 된 1860년에야 영국을 진정한 자유무역 국가라고 부를 수 있었다. 저자는 이 두 '불편한 진실'을 접어 둔다 해도 자유무역의 창조 신화에는 뚜렷한 구멍이 있다고 말한다. 영국은 사실 자유무역을 처음 한 나라조차 아니었다. 그 영예는 영국보다 수십 년 앞선 1810년대에서 1830년대 사이에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한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돌아간다.

어법

- **The repeal of the Corn Laws was 'the final victory' in 'the battle to end government restrictions on industry and trade', according to Milton Friedman** : according to = ~에 따르면(프리드먼의 말 — 저자의 판단이 아님). to end = battle을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 **the repeal 'ushered in three-quarters of a century of complete free trade lasting until the outbreak of World War I and completed a transition that had begun decades earlier'** : ushered in과 completed가 병렬. lasting = 현재분사 후치. had begun = 과거완료(폐지보다 앞선 일).
- **until it got regrettably disrupted by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ies created by two world wars and the Great Depression** : get + p.p. = 수동(상태의 변화를 강조). created = 과거분사 후치.
- **Let us put aside for the moment the fact that many of those 'government restrictions on trade and industry' that the Friedmans denounce as counter-productive were precisely what had enabled the global dominance** : 목적어 the fact가 길어 for the moment 뒤로 갔다. 동격 that절의 주어 many of those restrictions(복수) → were.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 denounce A as B = A를 B라고 비난하다.

- **it was only by 1860 that Britain could be described as a truly free-trading nation, with fewer than fifty items subject to tariffs** : it was ~ that 강조 구문(1860년이 되어서야). be subject to = ~의 대상이다. with + O + 형용사구 = 부대 상황.
- **Even if we ignore both these 'inconvenient truths', there is a glaring hole in the creation myth of free trade.** : even if = 양보(~한다 하더라도). both these + 복수 명사 어순.
- **It is that Britain wasn't actually even the first to practise free trade.** : It = 앞의 a glaring hole. is that ~ = 보어 명사절. the first to V = ~한 첫 번째.
- **That honour actually goes to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which adopted free-trade policy a good few decades before Britain** : go to = (영예가) ~에게 돌아가다. which = 계속적 용법. a good few = 꽤 여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sher in	열다, 시작을 알리다	herald	end
outbreak	발발	eruption	—
transition	이행	shift	—
prevailing	지배적인	dominant	marginal
unprecedented	전례 없는	unparalleled	commonplace
disrupt	깨뜨리다, 방해하다	interrupt	sustain
inaccuracy	부정확함	error	accuracy
denounce	비난하다	condemn	praise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낳는	self-defeating	productive
precisely	바로, 정확히	exactly	roughly
run-up (to)	~의 직전 시기	lead-up	aftermath
be subject to	~의 대상이다	be liable to	be exempt from
glaring	뚜렷한, 눈에 띄는	blatant	subtle
honour (n.)	영예	distinction	disgrace

내용 일치 프리드먼(20세기 가장 유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 · 로즈 프리드먼과 『선택할 자유』 · 폐지 = '마지막 승리' · 1차 대전까지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 · 통념: 전례 없는 세계 번영, 두 차례 세계대전 · 대공황이 깨뜨림 · 저자: 부정확함과 신화 · 규제가 영국 제조업의 지배를 낳음(5장 참조) · 각주 vii: 1860 세계 제조업 생산 20% · 1870 공산품 무역 46% · 1848 1,100개 넘는 품목에 관세 · 1860 50개 미만 · 첫 자유무역국 = 라틴아메리카(1810~1830년대). **밑줄 의미** the final victory = 프리드먼의 평가(저자는 반박) / the 'detail' = 작은 것이 아닌데 작은 것처럼 부른 반어 / inconvenient truths = 자유무역 이야기에 불리한 두 사실 / a glaring hole in the creation myth = 기원 이야기의 가장 큰 결함 / 67쪽 ¶3 his(extremely influential book) = Milton Friedman · it(got regrettably disrupted) =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 · 67쪽 ¶5 It(is that Britain ...) = a glaring hole.

> **한 줄 요약** 프리드먼은 곡물법 폐지를 자유무역의 출발로 보지만, 저자는 그 기원 이야기가 부정확함과 신화로 가득하다고 반박한다.

8-6 '자유롭지 않은 자유무역' — 불평등 조약과 보호주의 68쪽 ¶1 ~ 69쪽 첫 줄 + 71쪽 각주 viii · ix

원문 위치 원서 68쪽 ¶1 ~ 69쪽 첫 줄 + 71쪽 각주 viii · ix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8쪽 ¶1 첫 문장	may have been the pioneers of free trade, but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밑줄 의미 1순위 · 양보의 may
▲	68쪽 ¶1 둘째 문장	Upon gaining independence … they had been forced … to sign what came to be known as 'unequal treaties'	upon + 동명사 · what
★	68쪽 ¶1 셋째 문장	by depriving them of 'tariff autonomy', that is, the right of a country to set its own tariffs	용어 정의 · deprive A of B
★	71쪽 각주 viii	The most important among these 'other things' was 'extra-territoriality'	치외법권 · 헐값의 이권
★	68쪽 ¶1 넷째 문장	usually 5%, but it could be as low as 3% …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raise some revenue	숫자 5% · 3%
★	68쪽 ¶2 첫 문장	Turkey (then the Ottoman Empire), Thailand (then Siam), Iran (then Persia) and China	나라 이름 — 일치 후보
★	68쪽 ¶2 둘째 문장	from 1853 … the 'gunboat diplomacy' of Commodore Perry of the US navy	숫자 1853 · 인물
★	68쪽 ¶2 셋째 문장	jacked up its industrial tariffs to around the average of 30%, so that it could promote its nascent industries	5장과 연결 · 숫자 30%
★	68쪽 ¶2 넷째 문장	had already done the same when their unequal treaties expired in the 1870s and the 1880s	내용 불일치 1순위 — 순서
★	68쪽 ¶3 첫~둘째 문장	protectionism was the norm … (except in the Netherlands and Switzerland) … The US … 35–50%	숫자 · 예외국
★	68쪽 ¶4 둘째~셋째 문장	Only a few (Britain, the Netherlands and Switzerland) … under compulsion, not out of free choice	주장 · 통합 사고
◆	68쪽 ¶5 첫 문장	not tarnished by these kinds of 'unfree free trade' any more	밑줄 의미: 모순어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8쪽 ¶5 둘째~셋째 문장	expired by the 1950s. By the 1980s ... decolonized ... (around sixty)	숫자 — 요약문 문항
★	68쪽 ¶5 넷째 문장 + 69쪽 첫 줄 + 71쪽 각주 ix	since 1995 ... WTO, in which all member countries have an equal voting right	요약문 (A) · 각주 ix 비교

내용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자유무역의 개척자였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자유'무역은 '자유롭게' 채택된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처음 몇십 년 동안 스페인 · 포르투갈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자, 이 나라들은 영국이 이끄는 유럽 열강에 떠밀려 이른바 '불평등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 이 조약들은 무엇보다 약한 나라에서 '관세 자주권', 곧 한 나라가 스스로 관세를 정할 권리를 빼앗아 자유무역을 강요했다. 각주에 따르면 이 '다른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외법권'이었다. 약한 나라의 법 제도가 더 '선진적인' 나라의 시민에게는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 강한 나라의 시민은 약한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았다. 강한 나라의 개인과 회사에 천연자원(채굴권 · 벌목권 등)을 헐값에 개발할 이권을 주는 내용도 있었다. 아주 낮은 균일 관세율, 보통 5%(낮게는 3%)만 허용되어 정부는 약간의 세입을 거둘 수 있을 뿐 국제 무역의 흐름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다. 1830년대부터는 아직 독립국이던 다른 약한 나라들, 곧 터키(당시 오스만 제국) · 타이(당시 시암) · 이란(당시 페르시아) · 중국도 불평등 조약에 서명하고 자유무역국 대열에 들어가야 했다. 일본도 미국 해군 페리 제독의 '포함 외교'로 강제로 문을 연 1853년부터 그런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 그 조약들이 1910년대에 모두 끝나자 일본은 재빨리 자유무역을 버리고, 더 뛰어난 외국 생산자와의 경쟁에 맞서 갓 생긴 산업을 키우려고 공업 관세를 평균 30% 안팎으로 끌어올렸다(5장 참조).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불평등 조약이 끝난 1870년대와 1880년대에 이미 같은 일을 했다. 강요된 자유무역이 19세기와 20세기 초 내내 세계로 퍼지는 동안, 유럽 대륙(네덜란드 · 스위스 제외)과 북아메리카에서는 보호주의가 보통이었다. 특히 미국은 18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평균 공업 관세율이 35~50% 안팎이어서, 그 기간 대부분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였다. 결국 프리드먼 부부가 '4분의 3세기의 완전한 자유무역'이라고 부른 시기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자유'무역의 시기가 아니었다. 유럽 · 북아메리카에서 스스로 무역 정책을 고를 수 있던 스무 나라 남짓 가운데 자유무역을 한 나라는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 몇 나라뿐이었다. 나머지 자유무역 국가는 모두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라 강요 아래 그렇게 했다. 불평등 조약에 묶인 아시아 · 라틴아메리카의 약한 나라들, 그리고 식민 본국과의 자유무역을 강요당한 유럽 열강의 아시아 · 아프리카 식민지였다. 자유무역 지지자들에게는 다행히도, 오늘의 국제 무역 체제는 더는 이런 '자유롭지 않은 자유무역'으로 얼룩져 있지 않다. 불평등 조약은 1950년대까지 모두 끝났고, 1980년대까지 인구가 상당한 나라 대부분이 탈식민화되었다(아직도 놀랄 만큼 많은 60곳 안팎이 식민 지배 아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95년부터 국제 무역을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율해 왔다는 점이다. WTO에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더 강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더 큰 발언권을 갖는 다른 모든 국제기구와 달리, 모든 회원국이 같은 투표권을 가진다. 각주에 따르면 유엔에서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며, 세계은행 · IMF에서는 투표권이 납입 출자 지분에 연동되어 부자 나라가 과반의 표를 가지고, 표의 18%를 가진 미국은 주요 결정에 85%의 초다수가 필요하므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가진다.

어법

-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may have been the pioneers of free trade, but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 may ~ but = 양보(~였을지는 몰라도). may have been = 과거에 대한 추측 · 양보. had not been adopted = 과거완료 수동.
- Upon gaining independence ..., they had been forced by the European powers, led by Britain, to sign what came to be known as 'unequal treaties'. : upon + 동명사 = ~하자마자. be forced to V = 수동(억지로 ~하다). led by = 과거분사 삽입. what = 관계대명사(~라고 알려지게 된 것). come to V = ~하게 되다.

- these treaties imposed free trade on the weaker nations by depriving them of 'tariff autonomy', that is, the right of a country to set its own tariffs : impose A on B = B에게 A를 강요하다. deprive A of B = A에게서 B를 빼앗다. that is = 곧(앞말을 풀이).
- Only a very low uniform rate of tariff ... was allowed,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raise some revenue but not affect international trade flows. : so that + S + could = 목적 · 결과. could raise와 (could) not affect가 병렬.
- other weaker countries that were still independent ... were forced to sign unequal treaties and made to join the band of free-traders : make + O + 동사원형의 수동 = be made to V(to를 살린다). 변형 → made join은 오답.
- it had average industrial tariff rates around 35–50% ..., which made it the most protectionist country in the world during much of this period : which = 계속적 용법(앞 절 전체를 받음). make + O + 명사 보어.
- All the other free-trading nations were doing so under compulsion, not out of free choice : doing so = practising free trade(앞의 동사구를 받는 대용 표현). under compulsion = 강요 아래. out of = 동기(~에서 우러나).
- since 1995,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regulat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which all member countries have an equal voting right : since + 시점 → 현재완료 수동.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unlike = 전치사(~와 달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ioneer (n.)	개척자	forerunner	latecomer
impose	강요하다, 부과하다	force	lift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strip A of B	provide A with B
autonomy	자주권	self-determination	dependence
uniform (a.)	균일한	standard	varied
revenue	세입	income	expenditure
forcibly	강제로	by force	voluntarily
expire	만료되다	run out	renew
jack up	끌어올리다	raise	cut
nascent	갓 생긴	emerging	mature
offender	장본인, 위반자	culprit	—
compulsion	강요	coercion	free will
tarnish	더럽히다	taint	polish
decolonize	탈식민화하다	liberate	colonize

내용 일치 라틴아메리카 = 개척자였을지는 몰라도(may have been) 강요된 자유무역 · 영국이 이끄는 유럽 열강 · 불평등 조약 · 관세 자주권 박탈 · 균일 관세 보통 5%(낮게는 3%) · 각주 viii: 치외법권 · 헐값의 자원 이권 · 1830년대~ 터키 · 타이 · 이란 · 중국 · 일본 1853(페리) → 1910년대 만료 · 관세 30% 안팎 · 라틴아메리카 1870~1880년대 · 유럽 대륙(네덜란드 · 스위스 제외) · 북미 보호주의 · 미국 35~50% · 스스로 자유무역 =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뿐 · 조약 1950년대 만료 · 1980년대 탈식민 · 60곳 안팎 · 1995 WTO 같은 투표권 · 각주 ix: 미국 18% · 85%. **밑줄 의미**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라 강요된 자유무역 / made to join the band of free-traders = 억지로 자유무역국 대열에 / a particular offender = 보호주의의 대표 주자(비꼼) / unfree free trade = 강요된 자유무역이라는 모순어법 / 68쪽 ¶1 they(had been forced) =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 68쪽 ¶2 its(nascent industries) = Japan · 68쪽 ¶3 it(had average industrial tariff rates) = the US · 68쪽 ¶4 doing so = 자유무역을 하는 것.

한 줄 요약 19세기 자유무역은 대부분 불평등 조약과 식민 지배로 강요된 것이었고, 스스로 고를 수 있던 나라는 대개 보호주의를 택했다.

8-7 규칙은 누가 쓰는가 — 힘의 불균형과 '자유'의 뜻 69쪽 ¶1 ~ 70쪽 ¶4 + 71쪽 각주 x

원문 위치 원서 69쪽 ¶1 ~ 70쪽 ¶4 + 71쪽 각주 x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9쪽 ¶1 둘째 문장	Even though they don't exercise it as blatantly and brutally as before, stronger countries are still exercising their power	요약문 (B) · 지칭 they
★	69쪽 ¶2 첫 문장	much greater influence in setting the agenda … made sure that the rules were set in their favour	첫째 방법 — 규칙 만들기
★	69쪽 ¶2 둘째~셋째 문장	fewer restrictions on … agricultural producers than for manufacturing firms … rich countries have weaker agriculture	까닭 — 상대적 약점
★	69쪽 ¶2 다섯째~여섯째 문장	bans the use of 'local contents requirement' … disproportionately benefits rich countries	어휘 문항 · 6장 · 9장 연결
▲	69쪽 ¶2 일곱째 문장	even if all countries abide by the same rules, the more powerful countries are likely to benefit more	even if · be likely to
▲	69쪽 ¶3 첫 문장	written rules are one thing and how they are applied is another	A is one thing, B is another
▲	69쪽 ¶3 셋째 문장	use their power to prevent them from fully employing their tariff allowances	prevent A from -ing
★	69쪽 ¶3 다섯째~여섯째 문장	a key condition for their financial support … 'soft power' … academia, international media, and policy think-tanks	둘째 방법 — 돈과 생각의 힘
★	69쪽 ¶3 일곱째 문장	around 10% on average, even though … 20%, 30% or even higher	숫자 — 요지 문항
◆	69쪽 ¶3 여덟째~아홉째 문장	power does not just mean making someone do something against their will	힘의 두 얼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0쪽 첫 줄 + 70쪽 ¶1 첫 문장	beef has come to conquer the world in the last century and a half ... 'the planet of cows'	결론의 비유 · 스밀
★	71쪽 각주 x	the zoomass of cattle is 1.5 times that of humans and 200 times that of elephants	숫자 1.5 · 200
◆	70쪽 ¶3 둘째~셋째 문장	it only means freedom for those who are conducting trade across national borders ... No more, no less.	주장 문항 1순위
▲	70쪽 ¶4	Only when we understand the power imbalances ... can we understand why ...	Only when 도치

내용

그렇다고 국제 무역에 힘의 불균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강한 나라들은 예전처럼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힘을 쓰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기 이익에 맞게 국제 무역 체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먼저 더 힘센 나라들은 WTO 규칙을 정하는 첫 협상의 의제를 정하는 데 훨씬 큰 영향력을 가졌고, 규칙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해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WTO는 제조업 기업보다 농업 생산자에 대한 무역 보호와 보조금에 더 적은 제한을 둔다. 까닭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상대적으로 말해 부자 나라는 농업이 약하고 가난한 나라는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국 안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는 WTO 규칙도 있다. WTO는 '현지 조달 요건'(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투입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도록 요구하는 것 — 9장 · 6장 참조)을 금지한다.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부자 나라 기업이므로 이 규칙은 부자 나라에 지나치게 이롭다. 이런 예들은 모든 나라가 같은 규칙을 지키더라도, 규칙의 내용을 이미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 둔 더 힘센 나라들이 체제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다가 쓰인 규칙과 그 규칙이 적용되는 방식은 별개다. WTO의 관세 규칙은 사실 개발도상국에 더 높은 관세를 허용해 그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부자 나라가 힘을 써서 개발도상국이 관세 허용 한도를 다 쓰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이익은 제한된다. 그 힘은 흔히 돈의 힘이다. 부자 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지원, 곧 양자 간 '해외 원조'와 자기들이 좌우하는 세계은행 · IMF 같은 다자간 금융 기관의 대출에 무역 자유화를 핵심 조건으로 걸어 왔다. 때로는 학계 · 국제 언론 · 정책 싱크탱크를 통해 '소프트 파워'(더 멋진 말로는 관념의 힘)를 써서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에 좋다고 설득한다. 그 결과 WTO 규칙상 나라에 따라 20% · 30% 또는 그 이상의 관세율이 허용되는데도, 요즘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적용하는 공업 관세율은 평균 10% 안팎이다. 이는 힘이 누군가에게 뜻에 반하는 일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 또는 그 일이 자기 이익에 어긋난다고 믿게 되어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함을 보여 준다. 저자는 결론에서 소고기로 돌아간다. 끝없어 보이는 인간의 입맛과 보존 기술(추출 · 통조림 · 냉장)의 발달 덕에 소고기는 지난 150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다. 직설적인 환경 과학자 바츨라프 스밀의 말을 빌리면 소고기는 지구를 '소의 행성'으로 만들었다(각주: 소의 생물량은 사람의 1.5배, 코끼리의 200배). 소고기 산업은 온실가스 · 삼림 파괴 · 물 사용에서 지구에 큰 환경 부담을 지우고 있고(5장 · 14장 참조), 소고기를 빼고는 고기의 역할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식량 체계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자유시장 · 자유무역 경제학의 등장과 함께 '자유'는 사회와 경제를 생각하는 방식에서 지배적인 개념이 되었다. '자유'라는 말이 들어간 생각은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그에 반하는 듯한 것은 원시적이고 억압적이며 뒤처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유에는 여러 개념이 있고, 그 모두를 누구에게나 분명히 좋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2장 참조). 자유무역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사람들이 각국 정부의 규제(수입 금지 등)나 세금(관세 등)을 받지 않을 자유를 뜻할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첫 자유무역 시대(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으로 제 앞날을 정할 권리를 빼앗긴

'자유롭지 않은'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거의 도맡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의 (두 번째) 자유무역 시대처럼 나라들 사이에 형식상 평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제 무역의 규칙을 더 강한 나라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하고 운영하므로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똑같이 이롭지는 않다. 저자는 국제 무역을 규정하는 힘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자유'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을 때에야, 모두에게 그토록 분명히 좋다는 자유무역을 두고 나라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법

- **Even though they don't exercise it as blatantly and brutally as before, stronger countries are still exercising their power** : even though = 양보(실제 사실). as + 부사 + as = 동등 비교. they가 뒤의 stronger countries를 먼저 가리킨다.
- **It is not difficult to guess why – relatively speaking, rich countries have weaker agriculture and poor countries have weaker manufacturing.** : 가주어 it + 진주어 to guess. why 뒤 생략(why the WTO does so). relatively speaking = 독립 분사구문(상대적으로 말해).
- **written rules are one thing and how they are applied is another** :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 A와 B는 별개다. how절 = 명사절 주어 → 단수 is.
- **rich countries use their power to prevent them from fully employing their tariff allowances** : prevent A from -ing = A가 ~하지 못하게 막다. to prevent = 목적의 to부정사. them = developing countries.
- **It also means making others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in their own interests for fear of punishment from you** : mean + 동명사 = ~하는 것을 뜻하다. make + O + 동사원형(refrain). refrain from -ing = ~을 삼가다. for fear of = ~이 두려워.
- **Its dominance has been such that beef has turned the earth into 'the planet of cows'** : be such that = 정도가 대단해서 ~할 정도다(such가 보어). turn A into B = A를 B로 바꾸다.
- **there are many different notions of freedom, and they cannot all be treated as being unequivocally good for everyone** : all + not = 부분 부정(모두 ~인 것은 아니다). be treated as = ~로 여겨지다.
- **Only when we understand the power imbalances that define international trade and do not get dazzled by ..., can we understand why ...** : Only + 부사절이 문장 앞에 오면 주절이 도치된다(can we understand). get dazzled = get + p.p. 수동.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balance	불균형	disparity	balance
blatantly	노골적으로	openly	subtly
agenda	의제	programme	—
subsidy	보조금	grant	tax
disproportionately	지나치게, 불균형하게	unduly	equally
abide by	지키다	obey	violate
derive	(이익을) 얻다	obtain	—
disburse	지급하다	pay out	withhold
refrain from	~을 삼가다	abstain from	engage in
insatiable	채울 수 없는	unquenchable	—
deforestation	삼림 파괴	forest clearance	reforestatio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equivocally	분명히	unambiguously	ambiguously
perverse	모순된, 비뚤어진	contrary	reasonable
dazzle	현혹하다	blind	—

내용 일치 형식의 평등에도 힘의 불균형 · 의제 설정 · 농업 보호 · 보조금에 더 적은 제한(부자 나라는 농업, 가난한 나라는 제조업이 약함) · 현지 조달 요건 금지 → 부자 나라에 지나치게 이로움 · 관세 규칙은 개발도상국에 유리 · 원조 · 대출 조건(세계은행 · IMF) · 소프트 파워(학계 · 언론 · 싱크탱크) · 실제 공업 관세 평균 10% 안팎(허용 20 · 30% 이상) · 150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소고기 · 스밀의 '소의 행성'(각주 x: 사람의 1.5배 · 코끼리의 200배) · 자유무역의 자유 = 국경 넘어 거래하는 이가 규제 · 세금을 받지 않을 자유뿐. **밑줄 의미** written rules are one thing and how they are applied is another = 규칙과 적용은 다르다 / ideational power = 소프트 파워의 멋진 말 / the planet of cows = 소고기가 지구를 지배함 / No more, no less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 69쪽 ¶1 they(don't exercise it) = stronger countries · it = their power · 69쪽 ¶3 them(prevent them) = developing countries · 70쪽 ¶1 it(without talking about it) = beef.

> **한 줄 요약** 형식상 평등한 오늘의 WTO에서도 강한 나라가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므로, '자유'라는 말 뒤의 힘의 불균형을 보아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8 BEEF]

범위	Beef (원서 PDF 64~71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Just as beef dominates our diet, 'freedom' has come to dominate how we view the economy. Anything called 'free', from free markets to a free press, is assumed to be good, and whatever opposes it is labelled backward. Yet freedom takes many forms, and not all of them are good for everybody. In free trade, 'free' only means that those trading across borders escape national taxes and regulations. That is why, in the nineteenth century, free trade was carried on mostly by nations that had lost their own freedom. Only by seeing the imbalances of power behind the word can we grasp why free trade causes so many disputes.

① Poor countries should ban free trade.
② Free trade benefits all nations equally.
③ Look past 'free' to the power behind trade.
④ All kinds of freedom are good for everyone.
⑤ We should eat less beef for the planet.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otball, politics and civil rights are not the only fields where Uruguay has led the world. Less glamorous, perhaps, but just as remarkable is its beef industry. No other nation comes close to Uruguay in cattle per person. Quality matters too: in 2004, Uruguay became the first nation in which every single animal could be traced. This does not mean, the author admits, that beef from Uruguay is always the tastiest. Uruguay was also the first to produce beef extract on a large scale, a thick 'liquid beef' that later turned into the famous Oxo stock cube.

① Uruguay: Champion of the World's Beef Industry
② Why Uruguayan Beef Tastes the Best
③ How Football Made Uruguay Rich
④ Liebig's Dream of Feeding the Poor
⑤ The Environmental Cost of Cattle Farming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Rules on paper and rules in practice differ. WTO tariff rules actually favour developing countries, letting them use higher tariffs. Yet these countries gain little, because the rich nations exert their power to keep them from using what they are permitted. Often that power is financial: rich nations make trade liberalization a condition of their aid and of loans from the IMF and the World Bank, which they control. At other times they rely on 'soft power', persuading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universities, the media and think-tanks that free trade serves them. So although WTO rules allow many of them tariffs of 20%, 30% or more, their actual industrial tariffs average around 10%.

① Poor countries should keep tariffs low.
② Rich nations' power limits poor ones' gains.
③ WTO rules harm poor countries in every area.
④ Soft power matters more than money.
⑤ Developing countries run the IMF.

4. 밑줄 친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sk which nation is best at football, and many will name Brazil, winner of a record five World Cups. Others may point to Italy, which has won four with less than a third of Brazil's population. Yet the right answer is Uruguay. With a population of just 3.5 million, it has won twice: at the very first tournament, in 1930 at home in Montevideo, and in 1950 against the hosts in Rio de Janeiro, then Brazil's capital. Were Uruguay as populous as Brazil,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100 more than the total number of Cups won so far.

① Uruguay's record is amazing for its size.
② Uruguay should have won many more Cups.
③ Brazil has won more Cups than anyone.
④ More World Cups should be held.
⑤ A big population guarantees success.

5. 밑줄 친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ritain was not, in fact, the first nation to adopt free trade. The countries of Latin America did so some decades earlier, from the 1810s to the 1830s. Yet even if they were the pioneers, their 'free' trade had not been adopted 'freely'. Once they won independence from Spain and Portugal, the European powers, with Britain in the lead, made them sign so-called 'unequal treaties', which took away their 'tariff autonomy', the right of a nation to decide on its own tariffs. They were allowed only a single low tariff, usually 5% and sometimes just 3%, enough to raise some revenue without disturbing trade.

① They chose free trade for their own good.
② Stronger powers forced free trade on them.
③ They traded only with their neighbours.
④ Their governments collected no tariffs.
⑤ They dropped free trade on independenc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Justus von Liebig, a German scientist famous for ① his research on plant nutrition and seen as a founding father of organic chemistry, created beef extract in 1847. ② He believed it would allow the poor, who could not pay for real beef, to enjoy its nutrients. Sadly for ③ him, the ingredients were so costly that few could afford the product, and for fifteen years ④ his extract stayed a culinary curiosity, made only in small quantities. Then, in 1862, Georg Christian Giebert, a young German engaged in railway engineering in Uruguay, heard of the invention, and ⑤ he proposed producing it in Uruguay. Beef was very cheap there, being a mere by-product of leather-making, since the meat could not reach markets in Europe or North America without refrigerator ship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Uruguay has shone in more than football; it also has a fine recor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1912 Uruguay was the first nation in Latin America to give women the right to seek a divorce without stating any particular reason. In 1917 it was among the earliest nations anywhere to grant women the vote, and in 2013 it legalized marijuana, something no country had done before. The author, however, does not want to suggest that Uruguay has always been on the right side. From 1973 to 1985 it was under a brutal military dictatorship, and for most of that period José Mujica, who later served as president from 2010 to 2015, was held as a political prisoner.

① 우루과이는 1912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이혼 청구권을 주었다.
② 우루과이는 1917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첫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다.
③ 우루과이는 2013년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두 번째 나라가 되었다.
④ 우루과이의 군사 독재는 1985년에 시작되었다.
⑤ 호세 무히카는 대통령 임기 중에 정치범으로 갇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From the 1830s, several weaker nations that kept their independence, among them the Ottoman Empire (now Turkey), Siam (now Thailand), Persia (now Iran) and China, were also made to sign unequal treaties. Japan had to sign them from 1853, after the American naval officer Commodore Perry forced it open. When its treaties ran out in the 1910s, Japan quickly gave up free trade and lifted its industrial tariffs to about 30% on average. Latin American countries had done the same earlier, when their treaties ended in the 1870s and 1880s. Meanwhile the US, with average industrial tariffs of 35–50% from the 1830s to the Second World War, was for much of that time the world's most protectionist nation.

① 183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 · 시암 · 페르시아 · 중국도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 했다.
② 일본은 1853년부터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 했다.
③ 일본은 조약이 끝나자 공업 관세를 평균 30% 안팎으로 올렸다.
④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일본보다 늦게 자유무역을 버렸다.
⑤ 18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의 평균 공업 관세율은 35~50%였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Corn Laws ① introduced in 1815 protected British grain growers through measures like import duties or bans on cheaper foreign grain. Britain had had many Corn Laws since the fifteenth century, but the 1815 law caused particular anger because it came just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was beginning, when factories were expanding and towns ② were growing quickly. City-dwellers, who had to buy their grain rather than grow ③ it, hated the laws. The laws' critics argued that without them Britain could import cheaper grain, ④ allowing townspeople and many rural people alike to buy food for less. Cheaper food would also let employers pay lower wages, earn more profit and invest mor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⑤ was driving the nation's prosperity.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rned beef is not (A) [calling / called] so because there is maize in it, the sense most people now give to 'corn'. Using 'corn' for maize is a fairly recent American habit; in older British English the word refers to grain of any kind. The name comes from the way the beef was cured, which in the past (B) [used to / was used to] be carried out with 'corns', or grains, of salt, though brine is usually used now. Most Brits, if they stopped to think, would see that they often meet the old meaning. Many live in towns with a Corn Exchange, (C) [which / where] the grain market was once held, and many must have studied the Corn Laws at school.

	(A)	(B)	(C)
①	calling	used to	which
②	called	was used to	where
③	called	used to	which
④	calling	was used to	where
⑤	called	used to	where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Even so, this does not mean that power no longer matters in world trade. Stronger countries may act less ① openly and brutally than in the past, but they still use their power to shape the trading system in their own interests. First, the powerful had far more say in drawing up the agenda for the talks that produced the WTO's rules, and they made sure those rules ② favoured them. For instance, the WTO places fewer limits on protecting and subsidizing farmers than manufacturers, which is no surprise, since rich countries are relatively ③ weak in agriculture and poor ones in manufacturing. The WTO also bans 'local contents requirements', which oblige MNCs to buy a certain share of their inputs locally. This rule ④ equally benefits rich countries, since most MNCs come from them. So even when everyone obeys the same rules, the strong are likely to ⑤ gain more.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Like all such tales, the story of how free trade began contains many errors and myths. For one thing, many of the 'government restrictions' that the Friedmans attacked as harmful were exactly what had allowed British manufacturing to dominate the world before Britain turned to free trade. For another, Britain's shift to free trade was _____. In 1848, two years after the Corn Laws were abolished, more than 1,100 items still faced tariffs, a good number of them at high rates. Only by 1860, when fewer than fifty items were subject to tariffs, could Britain be called a genuinely free-trading country.

① a gradual process rather than a single step
② completed overnight by one repeal
③ forced on it by stronger nations
④ reversed soon after it began
⑤ opposed by its manufacturer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In those days, such a facility was found only at companies at the cutting edge of technology, like BASF, the German chemical giant.

LEMCO, a company named after Liebig's meat extract, was founded in London in 1865. (①) Its production plant, however, was built far away in Fray Bentos, a small Uruguayan town whose name means 'Friar Benedict' in English. (②) The name is said to come from a hermit of the seventeenth century who once lived in a cave close by. (③) The factory there came with a research and development laboratory, where scientific knowledge was used to create products and production methods that could earn money. (④) In time, LEMCO expanded its operations to several countries on three continents: Africa, Europe and South America. (⑤) Many historians therefore regard it as the first multinational food firm in the world.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n 1838 two MPs, John Bright and Richard Cobden, set up the Anti-Corn Law League; both later became heroes to Margaret Thatcher. ① With the support of non-farming groups, which were growing in number and power as industry boomed, the League ran a very effective campaign and had the law repealed in 1846. ② Milton Friedman, the twentieth century's most famous free-market economist, called the repeal the 'final victory' of the struggle against state controls on trade and industry. ③ Corned beef owes its name to the grains, or 'corns', of salt once used to cure the meat. ④ Friedman and his wife Rose wrote that it began seventy-five years of total free trade, which lasted until World War I. ⑤ According to the dominant view, this liberal order, led by Britain, brought an era of prosperity the world had never seen until the Great Depression and two world wars disrupted i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t first, LEMCO named its beef extract, unimaginatively, Lemco. Despite the dull name, it became a worldwide hit as a cheap, handy way to make beef broth, though it lacked the nutrients Liebig had hoped for. Later it became a dried cube called Oxo.

(A) As a result, canned corned beef and Oxo cubes became everyday food for working-class Europeans, for whom meat had once been a luxury. Cheap, durable and portable, they also fed soldiers in the Boer War and World War I, as well as polar explorers.

(B) Soon after the success of its extract, LEMCO produced another world-beater: canned corned beef, made from 1873. Salt-cured beef had existed in Europe for centuries, but LEMCO brought it within reach of far more people.

(C) It did so by making the meat cheaper and longer-lasting. It used cuts less costly than brisket and minced them, and canning let the meat keep far longer, so it could be shipped further.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upporters of free trade can take comfort that today's trading system is no longer stained by such 'unfree free trade'. All the unequal treaties had ended by the 1950s, and most sizeable nations had been decolonized by the 1980s. Above all, since 1995 world trade has been governed by the WTO, where every member has an equal vote, unlike other international bodies in which the strong formally have a bigger say. Even so, power has not left trade. Stronger countries no longer use it as crudely as before, but they still use it to shape and run the system to suit themselves.

→ Although today's trading system formally gives every member (A) _____ voting rights, stronger nations still (B) _____ it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① equal ..... shape
② unequal ..... shape
③ equal ..... abandon
④ unequal ..... leave
⑤ limited ..... rejec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1847 the German scientist Justus von Liebig invented beef extract, but it remained too costly for most people. Then LEMCO, set up in London in 1865, began making it at Fray Bentos in Uruguay, where beef was cheap, and in 1908 the extract became a dried cube known as Oxo. 'Corn' once meant any grain, as in Britain's Corn Laws of 1815. In 1838 Richard Cobden, together with John Bright, formed the Anti-Corn Law League, and the laws were repealed in 1846. Even so, more than 1,100 items still carried tariffs in 1848. Nor was Britain the first free-trader: Latin American countries had adopted free trade decades before.

<QUIZ>

(1) In what year did Liebig invent beef extract?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Uruguayan town did LEMCO make its extract?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the extract become a dried cube?
Answer for (3): _____

(4) In what year were the Corn Laws repealed?
Answer for (4): _____

(5) Who formed the Anti-Corn Law League together with John Bright?
Answer for (5): _____

(6) How many items still carried tariffs in 1848?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Britain was the first country to practise free trad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865	N. True
B. 1847	O. 1860
C. 1862	P. John Bright
D. 1873	Q. Giebert
E. more than 1,100	R. Fray Bentos
F. Montevideo	S. 1846
G. London	T. False
H. 1815	U. 1930
I. 1908	V. 2004
J. 1838	W. 5%
K. Richard Cobden	X. 30%
L. Milton Friedman	Y. 1853
M. fewer than fifty	Z. 1995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이 업적이 놀랍긴 하지만, 축구가 우루과이가 뛰어난 유일한 분야는 아니다. (형용사 + though + S + V(양보))

02 우루과이가 브라질만큼의 인구를 가졌다면, 두 번이 아니라 121번 우승했을 것이다. (혼합 가정법)

03 우루과이는 모든 소를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첫 나라다. (the first + 명사 + to have p.p.)

04 원료가 너무 비싸서 그의 추출물을 대부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값으로 만들 수 없었다. (too + 형용사 + to V)

05 가장 시시한 이름을 가졌는데도 그 제품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despite + 동명사)

06 통조림으로 만들어 LEMCO는 콘드 비프가 훨씬 더 오래가게 했다. (make + O + 동사원형)

07 콘드 비프는 옥수수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다. (not ~ because(부정의 범위))

08 꽤 많은 영국인이 역사 시간에 곡물법을 배웠을 것이다. (must have p.p.)

09 영국을 진정한 자유무역 국가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은 1860년이 되어서였다. (it was only ~ that(강조))

10 이 조약들은 약한 나라에서 관세 자주권을 빼앗아 자유무역을 강요했다. (impose A on B / deprive A of B)

11 부자 나라는 힘을 써서 개발도상국이 관세 허용 한도를 다 쓰지 못하게 막는다. (prevent A from -ing)

12 힘의 불균형을 이해할 때에야 우리는 나라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Only when + 절 → 주절 도치)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최다 우승 / 이탈리아 우승 · 인구	
우루과이 인구 / 우승 연도	
브라질 인구라면 우루과이의 우승 횟수	
이혼 청구권 / 여성 참정권 / 마리화나 합법화	
군사 독재 / 무히카의 대통령 임기(각주 ii)	
모든 소를 추적할 수 있게 함	
소고기 추출물 발명 / 발명자	
기베르트가 리비히의 발명을 앎	
LEMCO 설립 / 장소 / 공장	
옥소 큐브 / 통조림 콘드 비프 생산 시작	
콘드 비프의 몫(1942년 4~9월 영국 고기 배급)	
LEMCO 인수 / 가동 중단 / 세계유산(각주 v)	
곡물법 도입 / 반곡물법 동맹 / 폐지	
동맹을 만든 두 하원의원	
1848년 관세 품목 / 1860년 관세 품목	

항목	답
라틴아메리카의 자유무역 채택 / 조약 만료	
불평등 조약의 균일 관세율	
일본의 조약 체결 / 만료 뒤 공업 관세	
미국 평균 공업 관세(1830년대~2차 대전)	
WTO 출범 / 개발도상국 실제 공업 관세	
소의 생물량(각주 x)	

4-3. 통합 사고 문제 — 5장과 8장을 잇는 자리

문제

5장에서 저자는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새 산업의 미숙한 생산자들이 더 크고 뛰어난 외국 경쟁자에게 금세 쓸려 나간다고 썼고(49쪽 ¶2), 오늘날 자유무역의 본고장으로 여겨지는 영국과 미국도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였으며 산업의 우위를 이룬 뒤에야 자유무역을 받아들였다고 썼다(49쪽 ¶6). 8장에서 저자는 불평등 조약이 끝나자 일본이 갓 생긴 산업을 키우려고 공업 관세를 평균 30% 안팎으로 끌어올렸다고 썼고(68쪽 ¶2),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 · 북아메리카에서 스스로 무역 정책을 고를 수 있던 스무 나라 남짓 가운데 자유무역을 한 나라는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 몇 나라뿐이었다고 썼다(68쪽 ¶4). 이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나머지 자유무역 국가들이 어떤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했다고 저자가 보았는지 아래 68쪽 ¶4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 하나로 쓰고, 그 근거를 5장과 8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5장 또는 8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자유' 무역의 실상: All the other free-trading nations were doing so under _____, not out of free choice – weaker nations in Asia and Latin America under unequal treaties or the Asian and African colonies of European powers, which were forced into free trade with their colonial master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